

격려사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입니다. 한 해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내 안의 연음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현 시대는 수확의 즐거움보다, 다시 이를 이웃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유익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시기에 후학의 본분으로 선대의 공덕에 다례를 올리고, 템플스테이 수련관을 개관하게 되어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개관은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종단의 발원에도 부합하는 것이기에, 산중을 넘어 우리 모두가 삶과 사회에서의 향기로운 실천을 마음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은혜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문화, 복지, 청소년 교육을 아우르는 시대의 요구를 하나씩 성취하며, 종교적 책무 속에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고 미래의 희망을 이루어 나가는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혜철국사께서 중생을 살피시겠다고 산문을 여신 이래로 120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더 넓어지고 더 가까워진 산문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함께함에 있어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뜻 불러주어야 하고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 시대를 읽어가는 것이며 종교적으로 응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그 가치를 느끼게 하고, 인성의 존엄을 서로 나누며 정신문화의 보전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선대의 수승한 유산과 시대마다 함께한 역사와 전통이 온화한 숨결로 스며있기에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혜로움이 발현될 것입니다.

오늘 템플스테이 수련관 개관은 힘겨워 하는 현대인들에게 고요한 행복을 전하고, 참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뜻 깊은 수확입니다. 지역과 함께하고 마음까지 나누어 삶의 존재로서 행복을 깨닫게 하는 진실한 손길이 모두의 공덕으로 넓게 퍼지기를 청명한 기운으로 기원합니다.

종단이 나아가는 향방을 십분 이해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의미있는 결실을 성취해 나가는 주지 돈관스님의 진력에 깊이 감사하며, 소임자와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솔한 관심과 도움을 주신 도지사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영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공서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신 사부대중의 청안함을 축원하며, 오늘 우리가 들어선 산문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정신의 삶으로 들어서는 마음의 문이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9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